

“정보유토피아 중도사상으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통하여 세계의 거의 모든 곳으로부터 엄청난 많은 분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정보'라는 말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다. 산업정보, 군사정보, 학술정보, 문헌정보, 유전정보 등 정보란 전달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는 지식을 가리키며, 정보화란 통신 및 정보기술이 인간의 모든 사회생활의 영역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 정보기술이란 정보의 생산, 저장, 전달과 관련된 기술을 뜻한다.

어떤 시대에서도 정보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정보화 사회에서 말하는 정보는 그 어떤 시대나 사회에서 보다도 정보가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라는 말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21세기는 정보가 인간의 모든 사회생활에서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다.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나라들과 일본이 오늘날 잘사는 나라가 된 것은 고급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선진국 못지않게 정보화를 촉진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도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의 이용에 대해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기에 이르렀다.

우리정부는 국무총리를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삼고 2010년에 우리나라가 고도정보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3단계 정보화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2000년까지의 1단계 정보화추진계획을 심의하여 이를 확립해서 지난 6월 11일 공포했다. 이 정보화추진 기본계획에 의하면 전자정부구현,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학술·연구정보 이용환경 조성, 산업정보화 촉진, 정보

신문, 전자도서관, 전자미술관, 전자박물관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고선명 또는 입체의 고품질 영상을 고속으로 전송하여 새로운 통신을 창출할 수 있다.

지능화의 기술발전은 번역전화나 텍스트 번역 전화를 통하여 통신하는 상대의 선택성을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 그 결과 언어의 장벽이 없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세계화 된다. 정보기술의 지능화는 주문형 비디오 등 풍부성, 다양성, 선택성의 효과를 갖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고밀도화와 소형화의 기술발전은 휴대용 소형 컴퓨터나 전화 등을 쉽게 갖고 다닐 수 있게 해주어 어디에서든지 발전과 착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즉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그밖에 정보통신 서비스는 정보의 생산, 편집, 축적, 검색, 전달처리와 같은 정보의 과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예컨대, 문자화, 도형, 사진 등을 포함한 텍스트, 동화상, 동화상에 음성정보를 가미하는 영상미디어의 데이터베이스가 발전될 것이며, 음성과 문자와 동화상의 자동편집을 PDF (portable document file)



김교훈

정보화사회 어디까지 갈것인가

“이미 시공초월 정보 공유”

화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도 제고, 지역정보화 지원, 의료서비스 고도화, 환경관리 정보화,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외교·국방 정보체제 확립이라는 10대 과제가 선정되었다.

우리 정부는 동시에 초고속정보통신망, 즉 '정보고속도로' 조기구축을 위해서 광케이블, 통신위성, 해저케이블, 종합유선방송 전송망 등 모든 가능자원을 활용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이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나라가 고도정보사회가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고도정보화사회로 가는 데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부정적인 비관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누구나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보를 적절히 가공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며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방대한 정보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며, 각 개인의 취향에 알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기술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다음 정보의 내용이 충실해야 할 것이며 정보의 소비자는 가치있는 정보가 어떤 것인가를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21세기로 향하는 정보기술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를 좀더 전망해 보기로 하자. 정보기술의 발전 추세는 고속화, 대용량화, 지능화, 소형화, 고밀도화 등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고속화와 대용량화의 기술발전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고속, 대용량 네트워크에 의해 전자

번역전화·전자신문등 생활 대혁신

진실정보 유통위해 윤리교육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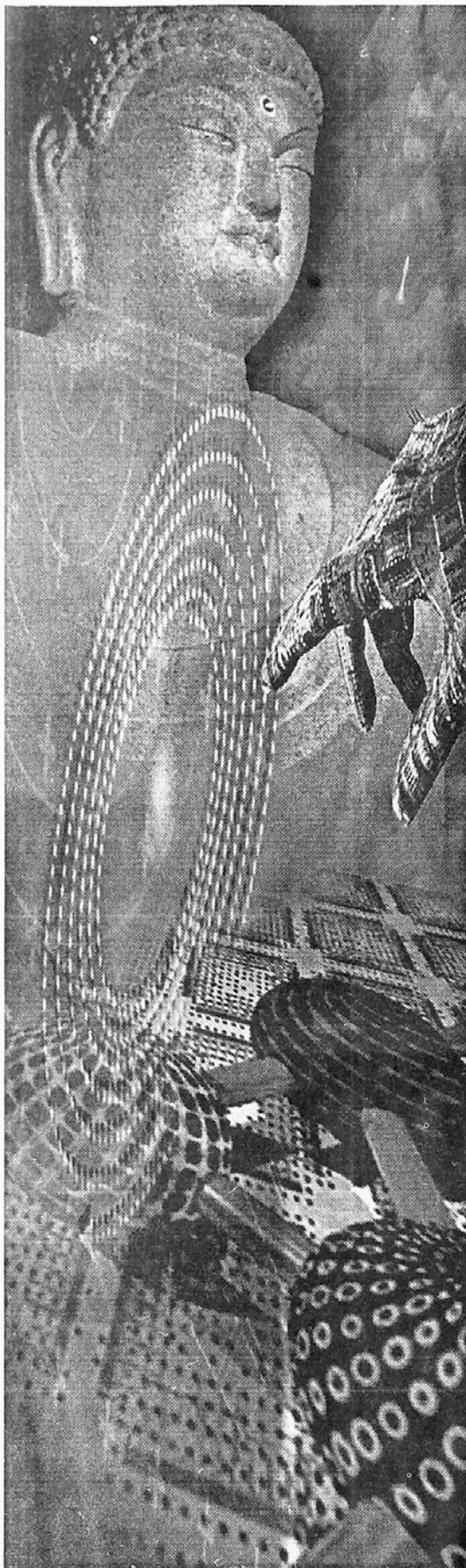
를 통하여 아주 쉽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디어 체계가 아무리 변하고 정보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선천적인 도덕성의 본질은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인간의 행동은 '진실해야 한다'든가,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든가 불변부당하고 공평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정보도 진실, 신뢰, 불변부당, 공평과 같은 기본적인 윤리적 덕목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사회를 상징하는 기법들은 정보고속도로, 즉 인터넷이다. 그러면 이것은 참되고 믿을 만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누가 정보원인가. 다시 말해서 정보의 진실과 공평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의 차이가 심할 수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우리는 인터넷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법적 규제도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정보기술의 부작용은 윤리교육적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좀더 신중하고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화사회에서 윤리교육을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함께 심도있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우리 모두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는 길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윤리문제는 더욱더 고양시키는 방식으로 해소시키는 길 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우리모두가 더욱더 어질고 착한 사람으로 바른 삶을 사는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울대교수·철학)



(컴퓨터그래픽=부디피아 제공)

정보화 사회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고도정보사회는 문화·산업·교육·의료·국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대변혁을 예고한다. 정보화사회는 과연 인류가 추구하는 유토피아일까, 아니면 일부 학자들이 예

신년 특집

21세기 새 思考로

인터넷망이 세계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리지만 각종의 정보망의 조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람들은 갈피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낯설어 변화하는 정보화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다. 우주의 시공을 종횡잡아나 정치잡아나 하는 현대 과학의 장의 이론이 나온 이후 일부 학자들은 우주를 일종의 정신장, 다시 말해서 정보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른바 대중매체의 정보장 속에 살고 있다.

컴퓨터는 비록 인간에 의하여 제작되었으나 마치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는 기계로 생각될 만큼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처음에는 컴퓨터가 철두철미 인간의 사고나 두뇌의 대체 기계로 제작되었으나 그 논리적 인식 내지 계산면에서의 정보처리 기능과 능력은 인간의 사고 통역이 상대가 안될만큼 앞서가고 있다.

오늘날 컴퓨터는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인간의 동반자로서 편집자, 수집자, 총고자, 의사 결정자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1981년 미국에서 최초의 DNA 신디사이저가 등장한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컴퓨터의 키보드의 유전자 정보를 타이핑 하는 것만으로도 3시간이 지나면 대량의 합성 유전자가 생겨 나오는 장치이다. 말하자면 컴퓨터에 의하여 유전자를 원하는 속도로 새롭게 설계하여 재조합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것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가지, 정보통신 혁명이 급격한 사회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거기에 따라 인간의 인식구조와 가치체계까지도 변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제 인터넷의 세계화로 인류의 모든 문화와 정보는 국경을 초월하여 공유화 되고 있다. 여기에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요컨대 현대의 정보화사회란 모든 정보의 송수신이 초고속의 광속의 속도로 전달되는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공간적 거리의 차이는 무의미하며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사항들은 모두 시간에 의해 결정되나, 불교(정토상부경)에는 천안통이니 천이통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은 오늘의 정보통신의 기술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보통신의 발달이 모두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과학 문명이 부정적인 역기능의 일면을 갖는 것처럼 정보화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은 컴퓨터와 영상매체를 통한 각종의 방란을 야기하고 있고 개인적 사생활의 침해의 무수한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컴퓨터나 정보통신 기기들은 그것이 아무리 능률적이고 편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그것들이 자동제어시스템의 첨단기능을 갖고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인간의 조정이 없는 한 기계에 불과하다.

사실 기계적인 생각들은 훨씬 능률적이고 많은 것을 성취하게 한다. 그러나 기계는 비인격적이며 무책임하다. 기계는 일을 빨리 끝내주고 인간이 원하는 것이 목표를 빨리 성취시켜 준다. 그러나 기계 속에는 윤리적 숭고성 내지 덕과 같은 목적 가치 내지 정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기계에는 일이나 근로 그 자체에서 오는 창조와 기쁨이 없다.

사이버네틱스의 창시자인 미국의 노버트 위너는 컴퓨터시대의 제2차 산업혁명을 '두 날을 가진 칼'에 비유하였다. 그것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류의 파멸에 사용되기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고도의 파괴무기에 컴퓨터가 장

치되어 있음
그는 인간
만이 존중되
망각한다면
사람들은
인 등의 비인
체들이 다
보 매체를 전
할 등을 전
히 불교문화
미래학자인
하이터치(정
등장한 것
게 공존한다
가 놀란만한
우리는 이러
사회에 대응
사이버
인간성

는 배
12연가
가
수한 종
길, 그
정보
이다.
상만을
가. 중
때문이다. 순수
“이것이 있으
면 그것이 생
서 살하신 연
일체의 조화
다”는 상의상대
중도에 내포
는 갈등·대립
다.
불교는 정보
새로운 사고기
정보화시대는
사회를 바라보
지일 육성하고,
는데 얼마나 심
불교를 21세기
지지 않는다. <
한때만 가능하
주고 인간완성

김용정



불기 2541년(丁丑年) 새해, 새날 - 만나는 인연마다 발걸음닿는 곳마다 불국토 이루소서

대한불교조계종 제1교구본사

조계사

주 지 진현근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45

전화 732-2115
팩스 720-1391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 지 김정락
총무 양심경
기획 이성종
교무 윤성무
재무 김성직

▶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188번지

전화 0331-34-0040
팩스 0331-34-2818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속리산 법주사

주 실 월산 성림
주 지 혜 광

대중일동

▶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번지

전화 0433-43-3615
팩스 0433-43-3620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산 동화사

주 실 진계주 지 무공
부주 지 태일 신원장 진허
총무국장 성호 기획국장 오정
교무국장 각 정 재무국장 선오
포교국장 지 도 호법국장 법현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전화 053-982-0101~2, 985-4404
팩스 053-985-4405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

주 실 일타 주 지 법타
총무 돈명 기획장 적
교무 재현 재무덕 조
호법 부용 사회계 선
포교 재경 원 주 혜안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전화 0563-35-3318~9
팩스 0563-35-0293